



# 보도자료



2020년 9월 21일(월) 10:00 이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20. 9. 21(월)	담당부서	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
담당과장	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송남근 과장(044-201-2411)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이상규 과장(044-215-4550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이창선 과장(044-202-4550)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융합과 김재준 과장(044-203-4390)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장성현 과장(044-201-7245)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김인경 과장(044-200-5670)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우경필 팀장(042-481-3913)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이강봉 과장(043-719-2411)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이승돈 과장(063-238-0710) 산림청 산림정책과 하경수 과장(042-481-4130)	담당자	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유대열 사무관(044-201-2415)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박정주사무관(044-215-4551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조아람 사무관(044-202-4556)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융합과 윤경민 사무관(044-203-4393)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윤희린 사무관(044-201-7251)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 진승준 사무관(044-200-5673)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산업전략팀 노치홍 주무관(042-481-3919)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 최윤주 연구관(043-719-2415)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춘송 연구관(063-238-0713) 산림청 산림정책과 임병억 사무관(042-481-4131)

## 그린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 키운다.

- 10개 부처·청 합동, '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' 발표 -

### ◆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 구축 추진

- ▲핵심기술개발, ▲빅데이터, ▲인프라, ▲그린바이오 사업화 전주기 지원, ▲그린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

### ◆ 그린바이오 기반을 토대로 5대 유망산업\* 집중 육성

- ▲마이크로바이옴, ▲대체식품·메디푸드, ▲종자산업, ▲동물용의약품, ▲기타생명소재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 추진

□ 정부는 10개 부처·청\*이 마련한 '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'을 9월 21일(월) 개최된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의 겸 제36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.

\* 농식품부(주관), 기재부, 과기정통부, 산업부, 환경부, 해수부, 중기부, 식약처, 농진청, 산림청

- 정부는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,
- 농어업 문제, 환경, 건강 및 질병치료 등 경제사회적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'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'을 마련하였다.

□ 이번에 발표한 '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'은 그린 바이오 5대 유망산업을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키우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및 이행계획을 담고 있다.

- 그린바이오 산업의 자율적 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▲핵심기술개발, ▲빅데이터, ▲인프라, ▲그린바이오 사업화 전주기 지원, ▲그린 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,
  - 이를 토대로 ①마이크로바이옴, ②대체식품·메디푸드, ③종자, ④동물용 의약품, ⑤기타 생명소재(곤충, 해양, 산림)를 5대 유망산업 분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- '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'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□ 산업기반 구축, 기업 전주기 지원(기술, 자금, 시험·평가, 시제품 등)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한다.

① 그린바이오 산업 5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,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한다.

\* 5대분야별 주요기술(예시): 마이크로바이옴(유전체 분석, 포스트바이오틱스 등), 대체식품(육류모사, 기능성 신소재 등), 종자(유전자가위, 디지털육종 등), 동물용의약품(단백질 재조합, 줄기세포치료, 식물백신 등), 기타 생명소재(곤충해조류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)

- 5대 유망 분야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중장기 R&D를 추진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.

② 유전체 및 기능성분 정보 등 분야별 빅데이터를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게 구축하고, AI 기술 등의 활용을 지원한다.

\* 식품영양·기능성물질 정보(국가표준식품성분DB 등), 수의유전자원 정보 등

- 「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(빅데이터 플랫폼)」에 그린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계하고, 슈퍼컴퓨팅센터\*, 유용미생물은행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.

\* 초당 100조번 연산 가능(비 2,700여개 엽록체 유전체 정보 해독 시 3일 소요)

③ 그린바이오 관련 시설·장비를 확충하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.

- 마이크로바이옴, 식품, 종자 등 분야별 지원기관을 통해 인프라 및 솔루션을 지원하고, 유관기관이 보유한 시설·장비를 연구장비포털\*에 등록하여 활용도와 접근성을 제고한다.

\* ZEUS(장비활용종합포털):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(KBSI)에서 운영하는 국가연구시설·장비 활용 플랫폼(최근에는 연구 장비 지식자료와 교육 정보도 제공)

- 특수대학원 등의 설립(석·박사급 연구인력)과 그린바이오 석사과정 계약학과 개설(산업인력) 등을 추진하여 전문인력도 양성한다.

④ 그린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.

- 그린바이오 기업을 인증(확인)하여 연구, 자금 지원 등을 우대하고,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·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패키지(연구개발, 컨설팅, 시제품 생산, 시험·평가 등)로 지원한다.

- 고비용·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상, 대량생산 등의 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임상대행기관(CRO), 제품생산대행기관(CMO)\* 등을 육성해 나간다.

\* (임상) 「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」 건립, (대량생산) 동물용의약품 제형화생산기술 R&D 지원,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인프라 구축 등

⑤ 지역별로 특화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.

-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\*을 선정하여 연구기관·기업의 집적화를 유도함으로써 산·학·연 및 시장이 상호 연계되도록 지원하고,

\* (예) 국가식품클러스터, 민간육종단지, 곤충 거점단지, 스마트양식클러스터,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등

-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실 임대, 연구시설·장비, 네트워킹 공간 등을 제공하는 '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' 건립을 검토한다.
- 신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검토 및 수출 지원(수출 대상국 내 제품등록, 안전성 시험 지원 등)을 확대한다.

□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을 토대로 ①마이크로바이옴, ②대체식품·메디푸드, ③종자, ④동물용의약품, ⑤기타 생명소재(곤충, 해양, 산림) 의 5대 유망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.

① 마이크로바이옴\*은 프로바이오틱스, 생물농약·비료·사료첨가제 및 환경 분야를 중점 육성한다.

\* 특정 환경(장(腸)내, 토양 등)의 미생물 총합을 의미,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인체·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

- 한국인 표준 장내 미생물 정보, 식품용 미생물 유전체 DB를 구축하고, 맞춤형 식품설계 기술(AI 등 활용), 유익균(대사산물 포함) 소재 발굴, 효과 검증 등 산업화를 지원한다.
- 마이크로바이옴에 기반한 생물비료·농약, 사료첨가제, 난분해성 폐기물(폐비닐 등) 처리제 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제도를 개선\*한다.

\* 「농약관리법」, 「비료관리법」 상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추진

② 대체식품·메디푸드는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에 집중한다.

- 대체식품 핵심기술\*이 선진국 수준을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대체식품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.

\* 육류 모사 가공 기술, 세포 배양기술 등

- 기능성 신소재(난소화성 등) 및 맞춤형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 등을 통해 질환자·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메디푸드를 활성화한다.

③ 종자산업을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전환한다.

- 유전자 가위, 디지털 육종 등 신(新)육종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, 기업체가 신(新)육종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, 유전체 분석, 병리검정, 기능성분 분석 등을 지원한다.

④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백신 개발 및 줄기세포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.

- 단백질 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백신\*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, 시험·평가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\*\*한다.

\*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,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등 백신, 변이형 바이러스(닭 마이코 등) 백신 등

\*\* 동물용 의약품 효능·안전성 평가센터, 식물백신지원시설 등 구축

- 인의학 분야 줄기세포 기술의 동물 분야 융합·활용을 위해 인수 공동 R&D를 확대하고, 동물 줄기세포 은행 활용을 지원한다.

⑤ 곤충, 해조류, 산림소재 등 기타 생명소재 산업을 지원한다.

- 곤충 스마트 사육 시스템 지원 및 규제 개선\*을 추진하고, 홍합·해조류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소재 등의 개발·상용화를 지원한다.

\* 동애등애 등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곤충을 「축산법」 상 가축으로 추가, 식품공전 상 곤충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 및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

- 산림 소재 거점단지\*, 식물정유(향장·향미료 등) 은행 등을 조성한다.

\*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(4개소)

□ 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미래성장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 분야 핵심산업으로 인식하고,

○ 그린바이오 산업 발전을 통해 신시장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 함으로써 그린바이오 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.

※ 붙임: 「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」(요약)

# 그린바이오 융합형 新산업 육성방안 (요약)

## 1 추진배경

□ 최근 IT·BT 등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이 신성장산업으로 대두

○ 그린바이오 산업 관련 기술 및 시장을 선점한 미국, 유럽 등을 중심으로 '3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

\* **마이크로바이옴**: ('19)747억달러 → ('30)1,519, **대체식품**: ('19)103억달러 → (30)281

- 해외 바이오 분야의 대기업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식품·종자·미생물 등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 (바이엘) 생물농약시장 선도, 디지털 육종(유전체 분석 및 빅데이터 활용)을 통한 종자 개발



□ 반면,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은 높은 성장가능성에도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여 산업이 불균형적으로 발전하였고 경쟁력도 낮은 수준

○ 우리나라는 산업 육성에 충분한 유전자원을 확보\*하고 있으나, IT·BT 등을 활용한 산업화 기술은 선도국 대비 75~80% 수준 (KISTEP, 농기평 '18)

\* 농업유전자원센터 보유 식물 유전자원(20.1월 기준): 26만점(세계 국가기관 중 5위 수준)

○ 그린바이오 산업의 핵심기술인 유전체 분석기술(빅데이터 포함), 신육종(NBT) 기술, 대체육 기술 등은 초기 단계

◇ 5대 유망산업\*을 중심으로 BT, 빅데이터 및 AI 관련 기술을 융합하여 그린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

\* 마이크로바이옴, 대체식품·메디푸드, 종자, 동물용의약품, 기타생명소재(곤충, 해양, 산림)

## 2 비전 및 추진전략

**비전** **그린바이오 산업을 통해  
신(新)혁신성장 동력 육성 및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**

**목표**  
 ◆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: ['19] 4.5조원 → ['30] 12.3조원  
 ◆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 고용 규모: ['19] 2만명 → ['30] 4.3만명

**5대 산업**    **마이크로 바이옴**    **대체식품 메디푸드**    **종자산업**    **동물용 의약품**    **기타 생명소재**

**추진 전략**    ◆ **산업기반을 토대로 기업 지원 및 상생의 산업 생태계 조성 (3대 분야, 5개 과제)**

**산업 기반**

<b>① 기술개발</b> ■ 핵심 유망기술 선정 ■ 핵심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	<b>② 빅데이터</b> 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■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	<b>③ 인프라</b> ■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 ■ 그린바이오 융합형 인재 양성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기업 지원**

**④ 그린바이오 사업화 전 주기 지원**

- (기업 인증) 인증기준·기관 정립, 인증 인센티브 마련
- (전주기 지원) 장비·컨설팅·시제품제작 지원, 모태펀드 투자 확대
- (특수분야 대행) 임상시험 및 제품생산 대행 기관 육성

**생태계 조성**

**⑤ 그린바이오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**

- (클러스터) 중점지역 육성,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건립
- (신수요·시장) 정부 우선 구매제도 도입, 수출지원

### 3 산업기반, 기업지원 및 생태계 구축 방안

#### 1. 핵심기술 중점 육성

- 그린바이오 산업 5대 분야 중심으로 핵심기술 선정
  - 「(가칭)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선정 위원회」를 구성하여 5대 유망 산업 분야\*를 대상으로 핵심기술 선정 및 로드맵 마련('20下)
  - \* ① 마이크로바이옴: 유전체 분석, 포스트바이오틱스 등
  - ② 대체식품: 육류모사, 기능성 신소재 등
  - ③ 종자: 유전자가위, 디지털육종 등
  - ④ 동물용의약품: 단백질 재조합, 줄기세포치료, 식물백신 등
  - ⑤ 기타 생명소재: 곤충·해조류·식물 등 생물 유래 소재 제형화 등
- 핵심기술 중심의 대규모 중장기 R&D(예타 기획중인 사업 등 포함) 추진 및 성과관리
  - \* 5대 유망산업 분야 총 17개 과제(고부가치식품기술, 종자산업혁신연구, 아쿠아팜 4.0 등)에 대한 R&D 강화 및 8개 과제 예타 기획 및 추진

#### 2. 빅데이터 구축

- 그린바이오 빅데이터(유전체, 기능성분 정보 등) 플랫폼 구축('20~, 각 부처)
  - 식품, 종자 등 핵심분야별 중장기 R&D 추진 시 관련 정보\*를 체계적으로 구축·정비하는 등 기업 요구수준에 맞는 빅데이터 구축
  - \* 식품영양·기능성물질 정보(국가표준식품성분DB 등), 수의유전자원 정보 등
  - 유전체 분석, 유용물질 발굴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 활용 지원
- 「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(빅데이터 플랫폼)\*」에 그린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수집하여 연계하고, 데이터 수집·관리 표준화
  - \*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(「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」 발표, '20.7)
- 슈퍼컴퓨팅센터\*, 유용미생물은행\*\* 등 빅데이터 활용 인프라 지원
  - \* 초당 100조번 연산 가능(벼 2,700여개 엽록체 유전체 정보 해독 시 3일 소요)한 초고성능 컴퓨터를 외부연구기관과 공유하는 체계로 개선
  - \*\* 미생물 수집, 유전체 분석 및 정보제공 등 미생물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



### 3. 장비·인력 기반 구축

- 미생물·종자 등 분야별 육성지원기관에서 핵심 시설·장비 지원
  - 「그린바이오 융복합 지원기관」을 지정하고 보유장비를 연구장비포털에 등록하여 기업의 접근성 제고
  -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시설·장비 개보수 및 장비 사용료 지원
- 핵심기술 분야 석·박사급 연구인력 육성을 위한 특수대학원 등 설립을 지원하고,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설\* 등 추진('21~)
  - \* 석사과정 계약학과(1년 과정, '20년: 2개 대학 → '21년: 4개) 등

### 4. 기업 전주기 지원

- 그린바이오 기업을 인증(확인)하고 연구, 자금 지원 등 우대('21~)
-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유망 제품·기업에 대해 연구개발·컨설팅·시제품 생산 등 패키지 지원
- 고비용·장기간이 소요되는 임상, 대량생산 등의 작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임상대행기관(CRO), 제품생산대행기관(CMO)\* 육성
  - \* (임상) 「동물용의약품 효능·안전성 평가센터」 건립('20~'22), (대량생산) 동물용의약품 제형화생산기술 R&D 지원('21), 해양 생물 소재 대량 생산시설 구축('20~'22) 등

### 5. 융합 생태계 구축

- 지역 단위의 그린바이오 중점 육성지역\*을 선정하여 연구기관·기업 집적화 및 산·학·연 공동연구 생태계 조성
  - \* (예) 국가식품클러스터(익산), 민간육종단지(김제), 곤충 거점단지(~'24, 3개소) 등
- 창업기업 보육을 위한 사무실 임대, 연구시설·장비, 네트워킹 공간 등을 제공하는 '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' 건립 검토('22~)
- 신수요 창출 및 시장형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\* 도입 검토 및 수출지원 확대\*\*
  - \*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린바이오인증제품 기준 설정 등 제도 마련(~'21)
  - \*\* 수출대상국 내 제품등록 및 안전성시험 지원 등(관계부처기관 합동 지원협의체 구성, '21~)

## 4 5대 유망산업\* 분야 육성방안

### 1. 마이크로바이옴: 국내 산업규모 ('19) 2.9조원 → ('30) 7.3 (연평균 8.7%↑)

\* 특정 환경(장(腸)내, 토양 등)의 미생물 총합을 의미, 유전체 분석기술 발달로 인체·작물 등과 미생물 군집간의 상호작용 분석이 가능해져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

- 마이크로바이옴 빅데이터 수집·개방을 통한 식품산업 고도화
  - 한국인 장내 미생물 정보, 식품용 미생물 유전체 DB(대사산물 정보 포함) 구축 및 개인 맞춤형 식품설계 기술(AI 등 활용) 기반 강화
  - 유익균 및 대사산물 소재 발굴, 효과 검증 등 산업화 R&D 지원
- 동식물에 사용되던 화학제제(농약·비료·사료첨가제 등)를 미생물제제로 전환
  -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생물비료·농약, 사료첨가제 등 개발 R&D 확대
  - 미생물 배양, 시제품 생산 등 상용화 지원\* 및 제도 개선\*\*
    - \* 미생물 효능평가·배양, 제형화·안전성평가(최종 제품화 단계) 등 지원
    - \*\* 「농약관리법」, 「비료관리법」 상 등록 절차 간소화, 심사 기간 단축, 수수료 인하 등 추진
- 수질오염·폐기물 등 환경개선을 위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 적극 활용
  - 수질개선제, 난분해성 폐기물(폐비닐 등) 처리제, 화학살균·소독제 대체제, 적조 유발 플랑크톤 제어, 잔류농약 저감 등 기술개발 강화

### 2. 대체식품·메디푸드: 국내 산업규모 ('19) 0.9조원 → ('30) 3.6 (연평균 13.1%↑)

- 대체식품 제조의 핵심기술인 육류 모사 가공 기술, 세포 배양 기술 등 R&D 중점 투자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
  - 대체식품 안전관리기준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마련('20~'25)
- 메디푸드·고령친화식품용 질환 맞춤형 신소재 발굴, 식이 설계 연구 및 기능성 성분 추출 촉매 기술 등 R&D 집중 지원
  - 식품 영양성분·효능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·개방\*('20~)하고, 식품유형 신설 및 질환별·섭취대상군별 표준화된 제조기준 마련(~'21)
    - \* 식품성분·효능정보: ('20) 24만건 → ('22) 30만건(「국가표준식품성분DB」 등 활용)

---

### 3. 종자산업: 국내 산업규모 ('19) 1,665억원 → ('30) 4,506 (연평균 9.5%↑)

---

- 유전자가위, 디지털 육종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新육종 기술 강화
  - 유전자 가위 기술 등 LMO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부처 TF 운영
- 기업체가 新육종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, 유전체 분석, 병리검정, 기능성분 분석 등 지원

---

### 4. 동물용의약품: 국내 산업규모 ('19) 1,414억원 → ('30) 3,297 (연평균 8.0%↑)

---

- 단백질재조합 기술 등을 활용한 동물용 백신\* R&D 및 상용화 지원
  - \* 아프리카돼지열병 백신,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등 백신, 변이형 바이러스 백신 등
  -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임상·비임상 실험\* 및 시제품 생산 지원\*\*
    - \*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구축(~'22),    \*\* 식물백신지원시설 구축(~'20)
  - 스쿠티카병(넙치류 질병) 대응 천연물 수산구충제 개발 및 상용화 지원('20~)
- 인의학 분야 줄기세포 기술의 동물 분야 융합 및 활용을 위해 인수 공동 R&D 확대, 동물 줄기세포 은행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('20~)

---

### 5. 기타 생명소재: 곤충 산업규모 ('19) 405억원 → ('30) 871 (연평균 7.2%↑), 해양소재 산업규모 ('19) 4,239억원 → ('30) 1.1조원 (연평균 9.2%↑)

---

- 곤충 생산·가공시설 개선, 스마트 사육 시스템 지원 및 규제 개선\*을 통해 산업저변 확대
  - \* 동태등에 등 산업화 가능성이 큰 곤충을 「축산법」 상 가축으로 추가, 식품공전 상 곤충 농약 잔류허용 기준 설정 및 중금속 허용기준 개선 등('21~)
- 홍합, 해조류 등 활용 건강기능식품, 의료소재 등 개발·상용화 지원(효능 규명, 시험인증 등) 및 생산·품질인증 인프라\* 구축
  - \* 해양 생물 소재 대량 생산시설 구축('20~'22) 등
- 식물정유(향장·향미료 등) 은행('22~) 설립, 제품화·판로 등 산업화 지원 거점 구축\* 및 산림 신품종 재배 단지 조성(~'26, 14개소)
  - \*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(4개소)